

◇봉정사 대웅전 (보물 제55호)의 공사 전 모습.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부터 9억6천만원을 투입해 해체·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봉정사 대웅전 언제 세웠나

'1361년 조성' 목서 발견 지붕속 부재 고려양식 '最古 목조건축' 가능성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경북 안동시)에서 최고(最古)가 속출하고 있다. 봉정사에서 '1361년, 고려 공민왕 10년에 불단 조성'이라는 목서가 발견된 가운데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최대(最古·最大)의 후불 벽화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전 건립 연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은 보다 더 미묘한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대웅전의 건축 양식과 1962년 실시한 보수공사에서 발견한 '1601년에 중수

했다'는 목서에 따라, 이 건물의 건립 연대를 '조선 초'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고건축 전문가인 신영훈 씨 등은 <봉정사사적기>와 대웅전 내부 구조를 토대로 '고려 말' 건립설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논쟁의 핵심은 봉정사 대웅전과 극락전(국보 제15호)을 놓고 '최고(最古) 목조건축물'이란 타이틀을 어디에 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극락전은 1363년(고려 공민왕 12년)에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심포 양식이어서, 건



◇봉정사 대웅전 불단 내부 상판에서 발견된 목서. 正二十一年鳳亭寺啄子造成: 1361년(고려 공민왕 10년)에 봉정사의 불단을 만들었다.는 글씨가 선명하다.

축하게에서는 1300년 전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대웅전 불단 내부에서 새롭게 발견한 '1361년'이라는 목서는 지금까지 '가설'로만 제기되었던 '고려 말 건립설'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한 실증적 기록이며, 동시에 '최고 목조건축물'의 타이틀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목서 외에도 이번 해체·보수공사 과정에서 겹으로 드러난 대웅전 건축 골격은 조선초기의 대표 양식이지만, 지붕 속의 부재 양식은 고려시대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봉정사 극락전 외부 단청과 유사한 문양의 단청들이 있어, 대웅전은 늦어도 14세기 중엽에 세워진 건물일 가능성을 더욱 짚어 준다.

이에 대해 동국대 김동현(문화재위원) 교수는 "봉정사 대웅전은 고

려시대에 건립되었다가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치며 천장과 마루가 설치되는 등 양식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대웅전은 고려시대에도 존재했지만 그 양식은 수차례의 중수 과정을 거치며 조선 초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단지 대웅전의 부재들은 고려시대 건물에서 나온 목재를 사용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공사를 맡고 있는 문화재청은 대웅전 건립 연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통상 대웅전을 먼저 세우는 사찰 건립 관행과 고려·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이 복합된 점 등을 들어, 봉정사 대웅전이 극락전보다 건립 연대가 다소 앞선다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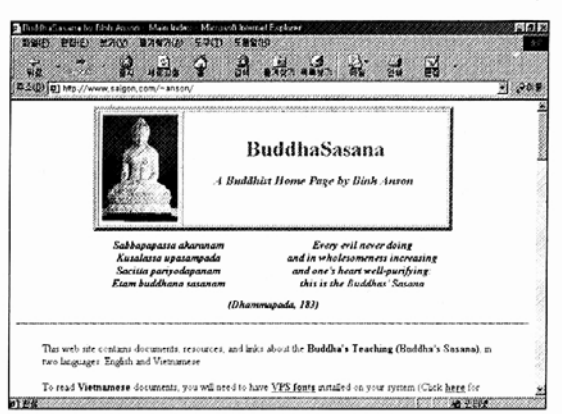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대웅전에 대한 적외선 촬영과 방사선 연대

측정 등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학계 및 관련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정확한 건립 연대 추정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봉정사 대웅전의 기둥이 침하되고 또 부재가 부식되는 등 건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총 9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체·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동 봉정사는 627년(신라 문무왕 12년)에 의상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경내에는 고려시대에 건축된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인 극락전, 조선 초 세워진 화엄강당(보물 제448호), 고궁당(보물 제449호), 만세루 등이 남아 있어, 고려·조선시대 목조 건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찰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부다사사나

베트남 불교의 사회활동 '접속' 불교논문·자료도 체계적 정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여러 논문과 원전에 관한 소개가 영어와 베트남어로 제공되는 사이트가 '부다사사나(BuddhaSasana)'이다.

베트남 불교학자 빈 안선 박사가 개설한 이 사이트는 불교 전반에 대한 여러 논문들과 자료들이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베트남 불교의 변모도 살필 수 있게 한다. 에피소드 중심으로 불교를 쉽게 소개하고 있어 초심자들이나 일반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불교의 맥을 짚어볼 수 있다.

이 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와 논문들은 총 41편. 여기에는 '달마의 세 가지 서약' '명상과 환생의 유용성' '빨리어 대장경에 대한 개괄적 검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불교와 환경보존운동' '술 속의 맑은 영혼' '불교와 민주주의' '진실한 불자의 길' 등이 있다.

이중 '빨리어 대장경에 대한 개괄적 검토'에는 경전의 결집과 경·율·논 삼장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다. '불교와 환경보존운동'에서는 베트남의 가장 유력한 불교잡지 편집장인 티안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생명체와 환경의 보호"라고 강조하고 있다. 티안 스님에 따르면 수천년동안 산과 숲 속에 건립된 사찰들은 인간과 자연이 얼마나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식주의자인 스님들은

사람과 자비의 정신으로 야생 동물들과 조화롭게 살아 왔다는 것이다. 티안 스님은 "외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이미 황폐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며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은 지식과 진실에 관한 갈망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며, 안분 지족의 자세에서 환경보호 방안을 찾고 있다.

'진실한 불자의 행로'는 스리랑카의 유명한 선승인 마하 나야케 스님이 영국 사드하티사(Saddhatissa) 국제불교센터와 인터뷰를 게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마하나야케 스님이 현대의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것으로 꼽은 20가지 실천 덕목은, 지금까지도 영국인 불자들의 생활 지침이 되고 있다고 한다. 스님이 강조한 실천 덕목에는 '가난할 때 자비를 베푸는 것'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수행하는 것' '경전을 읽을 것' '욕망과 욕정에 종속되지 않고, 그것들을 간직할 것' '사물에 대한 분별심을 익힐 것' '물질적인 유혹을 견디고 버릴 것' '폭넓게 공부하고 모든 사물을 철저히 분석할 것' '평정심을 유지할 것'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교리에 관한 개괄적인 이문을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지향하며 살아 가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살아 있는 부처' 등도 찾아볼만한 글들이다.

오종욱 기자

△http://www.saigon.com/~anson

"13세기 정혜결사 불교 현실참여"

조명제씨 한국선학회 발표회서 주장

"13세기 수선사에서 시작했던 불교의 개혁운동은 간화선의 현실 참여적 성향과 민족의식에서 비롯됐다." 18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개최된 '한국선학회 창립총회 및 1차 월례발표회'에서 조명제(부산대 강사) 박사는 '13세기 수선사의 현실 참여와 간화선'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 박사에 따르면 수선사의 선종은 자눌(1158~1210) 스님에 의해 다져졌는데, 자눌 스님은 남송시대 중국 불교계의 개혁을 주도했던 대혜(1089~1163) 스님의 선종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자눌 스님의 <대혜어록> 중에서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일상 인연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참구해야 한다"는 구절에 특히 주목한 조 박사는 "수선사의 선종은 일상 생활 속에서 참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13세기 '무신란'을 기점으로 수선사가 정혜결사를 결행, 불교 내

부의 타락을 비판하고 출가자뿐 아니라 세속인에게까지 실천수행을 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 셈이다. 또한 조 박사는 수선사 2세 혜심(1178~1234), 6세 충지(1226~1282) 스님 등의 활동을 조명하고, 국가와 민중을 먼저 생각했던 수선사의 선종이 면면히 내려온 것을 입증했다.

이 외에도 김중명(서강대) 교수는 '북미주 학계의 선종교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이곳에서의 한국의 선종교 연구는 자눌 스님의 중심으로 한 특정 선종들의 삼과 사상에 치우쳐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 교수는 "응용연구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미주 선종교 연구 경향과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를 가진 한국선학회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각 스님을 2년 임기의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학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선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뇌허학술상에 김상현 교수

뇌허불교학술원(원장 관용 스님)이 주관하는 제15회 뇌허학술상 시상식이 4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정각사에서 열린다. 김동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학술상인 뇌허학술상 수상 논문으로 김상현(동국대 역사학과) 교수의 '신라의 사상가 문화'가 선정됐다. 이 논문은 통일기 신라 사회의 변화와 그에 대응해 새롭게 전개된 교단의 활동과 불교사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인 의의를 찾고 있다. (02) 742-1231

'불교학보' 34집 발간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은 <불교학보> 제34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선종전통의 성립과 발전' (성근 스님) '신라시대 진표의 지장신앙과 그 전개' (홍윤식) '대승사상에 대한 부파의 배전(排戰)과 그 비판' (권기중) '조선불교 유신론의 의례관' (김호성) '초기 불교교단과 국가간의 관계' (신성현) '문화경관론적 측면에서 고찰한 백제불교 영광도래설' (홍광균) 등 논문 18편이 실려있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효사상 국제학술대회' 장면.

원효사상 국제학술대회 열려

원효(617~686) 스님의 불교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 '원효사상과 21세기-원효로 돌아가지'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3일 경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효 스님의 보살행을 21세기 NGO시대의 가치관으로 정립하고, 화평사상을 계승·지역·계급 갈등 해소의 사상적 배경으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불교신사사 주최 동북아평화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지관(가산불교문화원) 스님의 기조발제에 이어 박성배 교수의 '화평사상의 본질', 신오현 교수의 '현대철학의 한계와 원효사상', 카와이 교수의 '원효사상과 세계평화' 등이 발표됐다. 이어 속계된 토론에는 김진홍 목사,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 스위스 응용연구소 이주해 교수, 정계사 주지 지명 스님, 산업자원부 김영호 장관, 동국대 정병조 교수 등이 참석했다.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책들입니다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 치료법

최대의 실감

첨단 의학의 통세를 파고드는 놀라운 민간 요법. 수천 년 전의 민간비방의 비밀이 담긴 책. 사상 체질을 쉽게 알아내는 법과 건강을 지키는 효험법, 가정에 있어야 하는 상비요법 7가지 등 다채로운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12,000원

내 병은 왜 낫지 않을까?

좋은 인연 맺는 법

현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남산스님의 산중 에세이! 팔리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 속에는 세상사 분별과 갈등이 없는 대자유인의 마음이 담겨있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소다가다 만난 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파스요법'의 남산스님이 쓴 죽비같은 에세이! 한 스님의 최후유언으로 맺어지는 인연의 야단법석.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교만과 독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든 현대사회에서 진실한 자비를 찾아주는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비디오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파스를 이용하여 자기 몸 속의 질병을 다스리는 21세기 대체의학. 각종 호흡기질환에서 부인과 질환까지 파스 한 장이면 뭐! 각종 '남산스님의 파스요법'이 드디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판매공급처 :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 값 20,000원

* 관절염, 류머티스, 신경통,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남산스님께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약을 보내드립니다. -방문시절, 전화상담- 0502)988-6565

도서관 아카데미북 대표전화 3471-5008 팩스 : 3471-6575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여류 소설가인 한말숙씨의 작품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대개 시시한 바가 큰 작품이다. 이 찬탄할 만한 작품은 유교, 불교, 기독교의 사상적인 권위들이 결합된 독특한 관점의 한가지 질문에 깊이 천착하고 있다.

- 신대미 타인즈(인민), 라티 킨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프리랜서 기자

죽음과 삶, 사랑과 미움, 기독교와 사마니즘이라는 전혀 상반된 세계들을 아름답게 화해시키는 소설

- 빅윈시(작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내세는 있는 것인가? 영혼이란 것이 있을까? 우연은 필연인가? 운명이란 있는 것인가? 인간의 보편적 의문들을 끈질기게 추구한 소설

- 유인순 (강원대 교수, 평론가)

9개 국어로 번역된 한국명작 한 말숙 장편소설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

상상할 수 없는 것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을 묘사할 때조차 저자는 지극히 단순하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즉 가장 심비로운 것을 가장 보편적인 어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가재대 (폴란드) 헤레나 자워르스카 (문학 평론가)

새벽 5시 45분에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를 다 읽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유진과 석규, 기타 당신이 혼을 풀어놓은 여러 인물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결론은 전혀 내리지 않고 인생을 그 애매하지만 풍요롭고 복잡한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교재로 당신의 소설을 쓸 생각인데 허락해 주실는지요. 정말 당신이 내 마음과 영혼을 얼마나 깊게 뒤흔들었는지 알려드리고 싶군요.

- 루이스 R. 델로 (신프란시스코 신학교 교수)

속곡의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276-1호 계간빌딩 5층 503호 Tel. 02)722-9780 Fax 02)732-9787